

신제도주의 경제학(Neo-institutional Economics)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대두 배경

- (제도의 중요성 인식) 최근 들어 효율적으로 상정된 시장이론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현상의 설명에 한계를 느끼고 경제행위의 배경이 되는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됨
 - 신고전파 경제학이론에서는 효율적인 시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운영을 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장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생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음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주요 내용

- (정의) 신제도주의 경제학(Neo-institutional Economics)은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경제학적 조류를 일컫음¹⁾
 - 신제도학파는 가격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시장균형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제도와 조직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틀 안에 끌어들이고 있음
 - 거래비용을 주요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거래비용학파(Transaction Cost School)'라고도 불리움²⁾
- (거래비용)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주요 경제 분석의 틀로 사용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제도가 담당한다고 봄
 - 거래비용이란 경제주체간의 계약상에서 발생된 제반비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광의로는 경제체제를 운영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의미함

1) 1930년대까지 융성했던 미국의 구제도학파에서는 경제체도를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만 생각한 비해, 신제도주의학파는 경제주체들의 선택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제도의 생성과 정착과정을 설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2)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신제도학파의 주요 학자로는 R. Coase(1991), D. North(1993), R. V (1993) 등을 들 수 있음

- 거래비용의 종류로는 ① 정보 탐색비용, ② 협상비용, ③ 계약 작성비용, ④ 감독 비용, ⑤ 실행비용, ⑥ 재산권 설정 비용 등이 있으며, 효율적인 경제 제도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봄
- (거래비용의 발생원인) 경제주체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행동, 신뢰성의 미흡 그리고 제도장치의 미비가 거래비용 발생의 원인임
 - 인간이 지닌 제한된 합리성은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과 상호 작용하여 거래비용을 발생시킴³⁾
 - 예를 들어 경제주체간의 신뢰성 미흡은 계약감시비용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임
 - 去來環境(atmosphere) 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각종 법률과 같은 제도장치 역시도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통해 기회주의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시사점

- (제도개혁) 거래비용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는 구조조정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됨
 - 그러나 신제도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제도(Institution)"는 새로운 세제나 금융제도와 같이 명문화되어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과 전통까지 포함하며,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혁은 하드웨어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 및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경제주체간의 신뢰성 구축이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민간-민간, 민간-정부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운영이 필요
- (박용주 연구위원 yjpark@hri.co.kr ☎ 3669-4012)

3) 전통경제학에서는 이기심으로 가지고 합리성을 지닌 '경제인(economic man)'을 상정하고 있음에 반해, 신제도학과에서는 경제활동의 기본인 契約에 있어서 기회주의적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계약하는 인간(contracting man)'을 상정